



권영세 안동시장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권문의 본향

인터뷰

안동시장 권영세(權寧世, 북야공파 34세)  
대담자: 상임부회장 권순협(權純決, 별장공파 37세)

**권순협 상임부회장**: 올해로 시조 태사공 추향제가 제461회인데 맞이하는 소회가 어떠신지요.

**권영세 시장**: 올해는 시조 태사공께서 안동권씨를 득성한 이후에 권기 1088년이 된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동권씨와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권씨의 역사가 곧 안동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조 묘소를 모시고 있는 성씨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해마다 시조묘에서 추향제를 지낼 수 있는 안동권씨 후손으로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500여명의 족친들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추향제를 통해 안동권씨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앞으로 더 큰 발전과 화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순협 상임부회장**: 안동의 브랜드는〈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권영세 시장**: 안동은 시대별로 중요사상을 꽃피운 곳이자 그 사상을 고스란히 지켜온 추로지방(鄒魯之鄕)의 도시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노(魯)나라와 추(鄒)나라와 같은 정신적 고장이란 뜻입니다. 지역학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안동학(安東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 민속문화 등 안동의 문화지층을 연구해 15권까지 발간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여개의 서원 등에서 학문을 닦던 선비정신이 있고, 이것이 평생학습도시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봉정사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7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도시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안동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부를 수 있는 가치이자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순협 상임부회장**: 안동의 문화들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문화유산등록을 위한 노력과 의미 등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세 시장**: 전통의 온기를 간직한 안동은 한국을 품은 세계 속의 문화도시입니다. 세계유산 하회마을에 이어 '유교책판'과 '한국의 편액'이 세계기록유산과 아·태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안동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란 모델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내년 7월쯤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일원으로 봉정사가, 내 후년에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등재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정사와 서원이 등재에 성공하면 안동은 마을문화(민속문화)와 불교문화, 유교문화로 이어지는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모두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는 문화올림픽으로 비유될 만큼 치열합니다.

한 지역 또는 국가의 문화적 우수성과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은 유형적 가치가 등재 기준이 되고, 기록유산은 정신문화를 상징하며, 무형유산은 문화 창의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보유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안동은 이미 세계유산 하회마을과 기록유산 유교책판을 보유하고 있어 인류무형유산 등재되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보유한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권순협 상임부회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 3선 시장이 되는데, 지난해 도청이 전으로 안동 도청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장(市政)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권영세 시장**: 대마는 안동특산물인 안동도의 주원료입니다. 불과 10년전 만 해도 30ha 이상 되던 대마재배 면적이 급근 1ha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급감해 안동포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합법화를 넘어 선진국처럼 대마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대마산업협회(Hemp Industry Association·HIA)를 구성해 의료뿐 아니라 식품, 생활용품, 자동차 소재, 의류 등 산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권순협 상임부회장

나라도 이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있고, 28일에도 한국헬프융복합 연구회 주관으로 안동에서 '한국대마산업 활성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대마의 효용가치는 의료용뿐 아니라 농·축산(퇴비, 사료), 식품(음료), 섬유(의류), 건축, 화장품 등 최고의 신성장 산업으로 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큼니다.

우리시도 안동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안동포타운과 '전통 빛타래 김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마재배 면적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란 작은 단초가 급감하는 대마재배 면적 복원과 안동포 명맥을 잇고 대마관련 산업도 활성화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권순협 상임부회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 3선 시장이 되는데, 지난해 도청이 전으로 안동 도청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장(市政)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권영세 시장**: 원도심 재생사업은 모든 도시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신산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은 다양한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도심관광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도시재생정책 기조에 발맞춰



권영세 안동시장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등 전략적으로 신규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구)안동역과 폐선부지는 주거단지와 역사테마 공원, 철로카페, 환승센터 등 원도심 활성화 열쇠로 활용할 것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했다고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제국 쇠망사〉를 집필한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장애물인 바람과 파도가 항해자에게는 도우미가 된다는 것이죠. 안동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 오며 내공을 쌓아 온 도시인만큼 시민 한 분 한분이 유능한 항해자이자 훌륭한 선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진정한 경북의 만행이자 중심도시로서 세계 우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합니다.

**권순협 부회장**: 지방분권이 이슈화되고 있고,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영세 시장**: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방을 국가와 대립적 측면에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방분권을 국가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국민이 만든 권리와 책무를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국가경쟁력으로 볼 때도 분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은 강소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강소 중소기업이 튼튼한 국가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국가가 국제적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들어간다면 지역은 각각의 기능에 내재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동시에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완벽한 지방자치도 분권과 재정력이 확보될 때 가능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율은 4대 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국세 중심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세입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는 2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적 기능을 앞세워 중앙 관련 이익을 끼리고 있으나, 지방의 역량을 믿고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와 자치경찰제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중앙부처 독단적인 판단보다 지방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순협 상임부회장**: 안동시는 특이하게 시민현장을 만들어 문화와 전통의 유구한 안동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했는데 시민현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권영세 시장**: "우리는 문화와 전통을 가진 안동시민임을 자랑한다. 안동은 예로부터 인재의 보고요 미풍양속의 선타라 조상들의 슬기가 두루 스며있고...(중략) 이처럼 시작하는 안동시민현장은 이미

1980년대 말 제정돼서 50여년 가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민체육대회'나 '안동의 날 행사'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안동시민현장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동시민으로서 긍지를 되새기고 시민현장에 걸맞는 시민의식과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시민 한분 한분의 의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동 시민운동장 입구에는 '안동시민현장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자긍심과 의지가 오늘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만들고 있고, 도청 유치와 함께 경북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협 부회장**: 시장님의 좌우명은...

**권영세 시장**: 저는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는 이 세상(世上)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시민 앞에 나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차갑고 날카롭기보다 따뜻하고 온화한,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기 보다는 소통과 통합, 화합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협 상임부회장**: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영세 시장**: 우리 문종은 1,000년 이상 이어온 전통과 뼈대 있는 명문가로 추앙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세월동안 명현거류를 배출하며 우리 조상들이 잘 다져왔기에 우리 후손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젊은 우리 종친들에게 가장 좋은 정신적 보약은 올바른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통가운데 소중한 것 중의 하나가 족보문화라 합니다.

현역과 자연에 얽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알고 지금의 위치를 알 때 더 큰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동에는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 성씨의 분향인 안동을 찾아 뿌리를 찾아보는 것도 조상에 대한 자긍심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세무법인 확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심장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 CJ LAW 공중임가 청주로 CHEONGJU LAW



###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증친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인사(초대)/충주지청장

###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인텔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